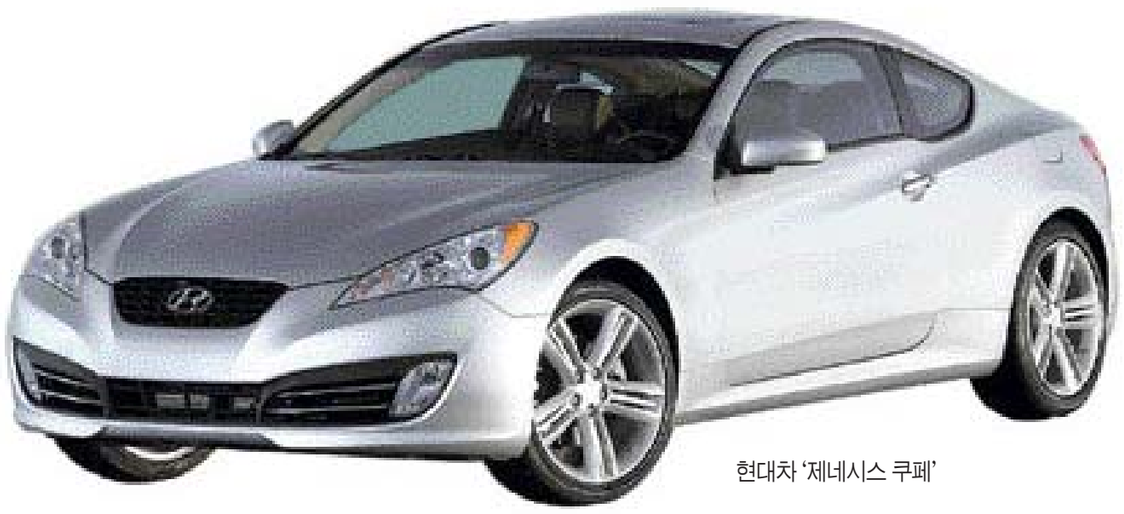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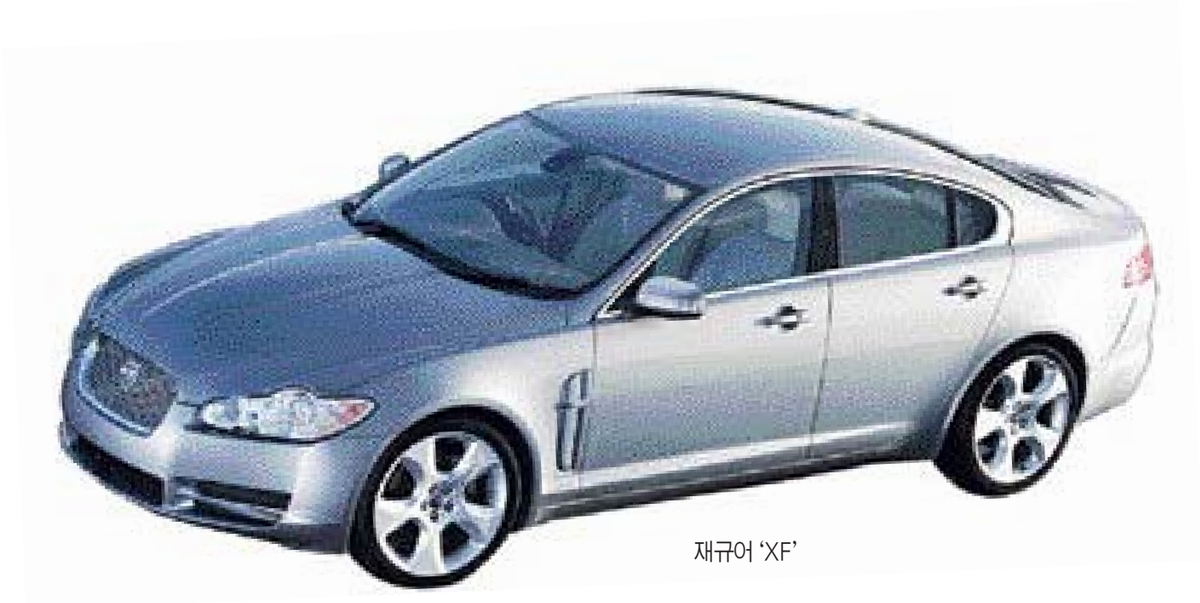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재규어 'XF'

차·차·차… 하반기 신차 쏟아진다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기아차 '쏘울' 등 속속… 수입차도 경쟁 가세

새 차 구입 계획이 있는 운전자라면 올해 하반기에 잇따라 출시될 신차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기아차가 23일 'AM(프로젝트명)'의 양산 차명을 '쏘울(Soul)'로 확정하는 등 업계의 신차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산차업계는 올해 내로 부분변경 모델을 포함해 10여종의 신차 출시를 통해 국내시장 수성에 나선다. 수입차업계도 새로운 브랜드와 신차들을 앞다퉈 내놓는 등 신차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국산차업계 '제네시스 쿠페' 등 10여종 출시=현대차의 '제네시스 쿠페'와 기아차의 '쏘울'은 올해 출시될 자동차 가운데 가장 큰 기대주로 꼽힌다. 두 모델 모두 최근 '부산 국제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제네시스 쿠페'는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후륜구동 스포츠카로, 3,800cc와 2,000cc 엔진 등 두 가지 모델로 생산된다. 3,800cc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이 300마력에 이르고 6.5초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할 수 있다.

현대차는 또 '에쿠스' 후속 모델인 'VI(프로젝트명)'를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께 출시할 계획이다. 4,600cc급 8기통 타우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기아차 '쏘울'은 광주공장에서 매년 10만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지난 2월 광주공장에 '쏘울' 생산라인 설비공사를 마치고 시험차량을 생산중이다.

스포츠카 이미지를 부각시킨 '쏘울 버너', 아웃도어 이미지를 강조한 '쏘울 서처', 여성들의 구미에 맞춘 '쏘울 디바' 등 세 가지 버전이 있다.

기아차는 또 다음달 '로체'의 부분개조 모델을 출시한다. 기존 모델보다 날렵하고 역동적인 스타일로 대폭 바뀐다. 전면부는 역동적이면서 강한 인상의 캐릭터를 심었으며, 후면부에는 직선 이미지를 가미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하반기에 '쎄라토'의 후속 모델이자 준중형 신차인 'TD(프로젝트명)'를 내놓는다.

GM대우는 프리미엄 SUV인 '윈스톰 맥스'를 오는 7월께 출시한다. 강철 복합 보디구조와 견고한 서스펜션이 적용됐으며,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사양으로 들어갔다.

GM대우는 또 올 하반기에 대형 세단인 'L4X'를 출시할 계획이다. 정통 후륜구동 방식으로, 프리미엄 대형세단을 표방하고 있다. 5단 자동변속기와 3,600cc 얼로이텍 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대 출력(258마력)을 낼 수 있다.

'라세티'의 후속 모델인 'J300(프로젝트명)'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차량에 역동적인 스타일이 가미돼 준중형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강조됐다.

'라세티'는 유럽에서는 '시보레 라세티' 및 '누비라', 아시아에서 '시보레 옵트라', 미국에서 '스즈키 포렌자' 및 '레노' 등의 이름으로 세계 1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22만여대가 수출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차종으로 기록됐다.

◇닛산 '무라노' 등 수입차도 신차 경쟁=올 하반기에는 수입 신차들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5%를 넘어섬에 따라 시장 공략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닛산은 오는 11월께 닛산 브랜드 3개 모델을 국내에 선보인다. 닛산의 대표 모델인 중형 SUV '무라노(Murano)'를 비롯해 SUV '로그(Rogue)', 중형차 '알티마(Altima)' 등이 한국 상륙을 앞두고 있다.

포드는 지난 19일 '뉴 모데오'를 출시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포드 'S-MAX'를 한국시장에 내놓는다. 이 모델은 다이내믹한 주행성능과 스타일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 권위의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폭스바겐은 오는 7월초께 '티구안'을 국내에 선보인다. 이 모델은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후 3주 만에 유럽에서만 4만2천300대의 선 주문을 받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볼보는 '2008 제네바 모터쇼'에서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모델 'XC60'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시장에 선보인다. 크로스컨트리(XC)와 스포츠세단 'S60'의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조합한 모델로, 다이내믹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부산모터쇼에서 선보인 고성능 모델 '뉴 C 63 AMG', '뉴 제너레이션 SL 63 AMG' 등을 올해 하반기에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C-Class의 최고급 모델에 해당하는 '뉴 C 63 AMG'는 V8엔진의 플래그쉽 모델로, 메르세데스-AMG의 40주년인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재규어는 파격적인 신모델 'XF'를 부산 모터쇼에서 선보인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한국 출시에 나선다. 'XF'는 컨셉카인 'C-XF'의 양산형 모델로, 날렵한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에 재규어 특유의 주행 밸런스, 핸들링 등을 겸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GM대우 'L4X'

기아차 '쏘울'

닛산 '무라노'